■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10절

Tag: 복음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9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살전1:1-10)

특히 5절에 보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다. 바로 '순복음'이라는 표현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순복음이다. 100% 진짜 복음이라는 뜻이다.

과연 70년대 당시 순복음 운동은 가히 폭발적이었고, 한국교회의 판도를 뒤 바꾸어 놓는 성령운동이었다.

애초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되찾은 복음은 로마 카톨릭의 율법주의와 마리아숭배를 비롯한 성상숭배와 성경과 기독교전통과 이교도적인 문화들로부터의 오직 외경을 제외한 성경으로의 탈출이었다. 이런 성령운동도 당시로서는 매우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다만 마치 그것은 온갖 잡동사니로부터 진주를 구별해 내는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초대교회 이후 잃어버린 진짜 복음에 관심을 쏟게 되면서 얻은 값진 진주인 셈이다.

순복음교회의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에 생명력이 더해졌다. 복음의 핵심이 성령운동인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로서는 성령운동이 당연히 등한시 되었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면서 성령운동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초대교회때(아니면 구약의 예언자 시대 때) 잠시 나타난 운동이라고 짐작하였을 뿐이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성경말씀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고 생각했다.

오순절 운동은 바로 그 말씀 속에 활발하게 일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에 집중했다. 초대교회 때 나타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교회는 은사운동에 집중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교회는 여

전히 말씀 운동에 힘을 쏟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은사운동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모습 모두 진짜 성경이 소개하는 성령운동은 아니었다. 전통적인 교회는 성령운동을 무시하였고, 성령운동을 하는 교회는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다루기 일수였다. 결국은 통전적인 성령운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선 첫째로 성경에는 리얼한 진짜 세상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러나 말씀 운동만으로는 성경에 담겨있는 살아있는 성령운동과는 거리가 있었다.
반면 은사운동은 너무 성경으로부터 동떨어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은사에 치중된 현상들이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점차 은사운동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왜냐면 진짜 성령운동이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리가 문제가 되었다. 대표적인 교리가 잘못된 종말론이다. (여러가지 문제들 중 하나)

(셋째) 또 두 운동 다 놓치고 있는 영역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 까지는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넷째) 그리고 종교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율법주의로의 진행이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굳어버리는 현상과 비슷하다. 그래서 성령운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주의화된다. 그러면서 성령운동이 식어버린다.

(다섯째) 또한 시대는 자꾸 변화한다. 문명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며,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변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중요한 포인트는 시대는 변할지라도 사람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만족도 없고 회복도 없고 변화도 없고 새롭게 되는 것도 없다는 점이다.

오직 성령을 통한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고, 마귀와 귀신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거짓과 율법의 철창에서 벗어나게 하고, 게으름과 핑계와 자기연민의 늪대로부터 탈출하게 한다.

세상은 첨단 IT 시대가 되었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곧 올 것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세상이 되었어도 여전히 사람은 죄악에 시달리고, 억압에 시달리고, 실패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병과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이 사람이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헤메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 지식은 많으나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영적인 고아가 되고, 자기 죄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새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는 것이다.

의심 많고, 무지하고, 고집이 세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까다로운 일인가? 진리 보다는 거짓말을 좋아하고, 선보다 악을 좋아하고, 세속적인 습관으로 왜곡된 자아를 지닌 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가?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누군가 억지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사람에게는 분명히 자의적 의지가 있지만, 이미 병들었고, 세속에 물들었고, 비뚤어졌는데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도록 도우신다. 이것이 성령운동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